



2024년 12월 22일(제1225호) 대림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 성탄이리는 기쁨의 때를 앞두고 찬양하며”

† 찬미 예수님!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장차 예수님의 앞길을 닦을 세례자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뱃속 세례자 요한도 몸짓으로 찬양을 표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23일) 복음에서는 엘리사벳이 먼저 주님의 큰 자비 가운데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엘리사벳과 남편 즈카르야는 자신들의 아기가 장차 주님의 큰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주님의 계획에 깊이 탄복하며 주님 뜻대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모레(24일) 저녁 전 복음에서는 즈카르야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소리높여 칭송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시각 주변 들뜬에 있던 목동들은 하늘에서 보인 범상치 않은 징조에 놀라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서 세상 처음부터 약속하였던 말씀이신 주님이심을 확고히 증명하며 찬양합니다(요한복음의 ‘로고스 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감각’(Sensus Fidei)으로 성경에 직접 적혀있지는 않지만, 다른

동물들도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뵈러 왔던 목동들이 치고 있던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를 쫓아와 마구간에 누어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구간의 본래 주인인 소와 나귀도 그때만큼은 자신들의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놀랍고 신비로운 순간을 보며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장차 엘리사벳 아들 세례자 요한의 손을 거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요르단강도 미리 그 기쁨에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람되심, 육화(肉化) 사건은 단순히 어떤 한 위인의 탄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의 주인을 직접 뵈게 된 날, 마치 주인 잃고 방치되었던 꽃밭이 다시 정성 가득한 정원지기를 만난 기쁨의 때입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의 순간을 이제 곧 맞이합니다. 바쁜 일상이더라도 이 기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존재를 위해서라도 누리고 기뻐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 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아멘.



오병준(미카엘) 신부
오두기(육군 제8기동사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미카 5,1-4ㄱ
- 회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 독 시 히브 10,5-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복 음 루카 1,39-45
- 영 성 제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이홉 번째 시한

열여섯 식구가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 어떤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교우 가족이 살다가 포졸들의 등쌀에 못 이겨 버리고 떠난 집이었습니다. 조 씨는 이 집에서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당분간 살아나가기에 꼭 필요한 세간살이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도 쫓겨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다른 데로 피신할 수밖에 없어서 친구들에게 구걸하면서 처참하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는 아무것도 아쉬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착한 예비 교우들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불행한 신세에 대해 크게 한탄하거나 원통해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박해의 복세통에 아직 세례받지 못한 것만이 유일한 고통이랍니다. 이 집안 식구가 14명인데 자기 집에 선교사 신부님을 모셔다가 세례받게 될 날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과 온 백성들은 천주교 신자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슨 음모나 꾸미는 자들이 아닌가 하고 확신합니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추리합니다.

“자기네들의 종교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좋은 종교이고, 또 천주교의 겉모양은 그럴 듯하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 겉모양 아래 흉측한 음모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왜 비밀리에 전교하는가? 특히 왜 선교사들이 남의 나라에 몰래 잠입하여 비밀히 자기 교리를 전파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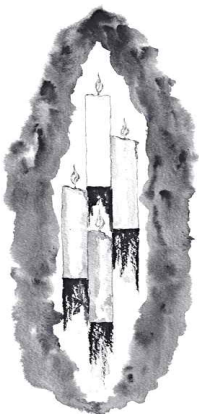
저들의 나라가 매우 강력하다고 떠벌리니, 우리에게서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을 터이다.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그 종교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의 군주들이 그 종교의 신봉자들로서 그 종교의 포교를 힘껏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 신봉자들인 군주들의 보호를 받아 가면서 그 종교의 팽창을 조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강요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가) 왜 합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가? (프랑스 선교사들이) 왜 공개적으로 오지 아니하는가? 왜 몰래 입국하여 모든 것을 비밀히 행하다가 그다지도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가?

그들의 행동 방식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무슨 흥계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는 등등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촛불을 다 올리고

하나를 올리며, 희망에서
희망을. 사랑까지.

하나에. 그 마음이
또 하나에 세상에 작은 빛으로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을 수 있기를.

이제 마지막 하나에,
사랑을 담아 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방문(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



16세기 독일에서 활동한 슈트룹 형제가 그린 작품으로, 아버지 피터 스투룹도 화가였다. 본 작품도 수도원의 대형 제단화 중 일부였으나, 조각내어 팔렸으며, 결국 마드리드의 타이센-보르네미짜 미술관 품으로 오게 된다.

아마도 엘리사벳의 집 현관문과 외벽으로 보이는 배경은 금박으로 입혀져 있으며, 이는 중세의 종교화 전통에서 보이는, 금박으로 배경을 마감하는 전통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금발과 얼굴형 등을 보아 전형적인 동시대 독일 지방 여성의 모습을 한 두 여인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다소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엘리사벳이, 그리고 왼쪽에 다소 젊게 표현된 성모님이 보이며, 반갑게 서로를 포옹하고 계신다.

The Visitation
 야콥/한스 슈트룹 형제(Jakob and/or Hans Strüb)
 1505년경 제작 / 패널 위 유화, 80x54.7cm
 타이센-보르네미짜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인상적이게도,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성모님의 방문을 주제로 한 그림들에서 엘리사벳과 성모님 태중의 태아까지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아마도 화가들이 나름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었을 텐데, 이 작품에서는 단순히 태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태아들이 취하는 행동까지 묘사한 것이 흥미롭다. 즉 엘리사벳의 태중에 계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성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는 것으로 그려졌으며, 성모님 뱃속에 계신 예수님은 두 손을 살짝 모으고 계시며 후광으로 빛나신다. 또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난을 아시는 듯, 결연한 듯한 표정의 성모님이 인상적이다.



김은혜(엘리사벳)

태중에 계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비상대 김태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을지(제1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2월 22일(주일)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때·곳: 12월 24일(화)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성요셉(의무사) 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
 때: 12월 25일(수)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